

1.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예수를 믿은 것일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잘 알고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깊은 착각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예수를 믿은 것이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주어를 '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고, 내가 믿었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 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나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강조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 장 6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았고, 사라 역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도 그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게 믿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었느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 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성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드셨습니다. 결국 믿음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막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이해된 후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믿으며,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을 내가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글에서 말한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나요?

→ _____

- 최근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조력자로만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 vs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 중, 여러분에게 더 와 닿는 생각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잡으셨던 순간이나 은혜를 경험한 일을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내가 신앙의 주인공이라고 느껴질 때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느껴질 때의 차이는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아닌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기도문을 부분별로 나누어 읽어 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 오늘도 저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는 종종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진정한 주인은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미 저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세요. 저희 삶 속 작은 결정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인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